

제 16 차 대한두경부종양학회

■ 지상 발표 ■

1

구인두암 - 임상양상과 치료결과

김광현* · 성명훈 · 하정훈 · 박민현
성원진 · 정영호 · 최병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배경 : 구인두암은 높은 치사율과 많은 합병증을 가지는 질병이다. 그러나 구인두암의 증상은 모호하고 비특이적이어서 조기 발견이 어려운 점이 있다. 구인두암, 특히 편평상피암의 경우에 치료방법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구인두 편평상피암의 임상적 양상과 증상, 병리소견을 이용하여 치료방법과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1984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구인두암으로 진단을 받은 19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치료군은 (1) 항암제 투여군 (2) 방사선치료군 (3) 수술군 (4) 수술과 술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한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과 : 인후통(26%)과 경부종괴(24%)가 구인두암에 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었다. 편평상피암과 림프종이 46%와 43%으로 가장 많았다. 구인두 편평상피암에서 제3 병기와 제4병기가 7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88 명의 편평상피암환자중 12명(13%)에서 중복암이 있었다. 1년 무병생존률과 2년 무병생존률은 60.7%과 54.3%였다. 무병생존률은 수술후 방사선치료를 받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 2년 전체생존률과 5년 전체생존률은 88. 4%와 78.5%였으며 치료방법이 다른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 병리학적 조기진단이 적절한 치료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하다. 만족할만한 치료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가지 치료방법만 적용하지말고 여러 치료방법을 같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인두 편평상피암에서 중복암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배제해야한다.

2

구강설암 환자에서 경부임파절 전이 예측에 관한 연구

금기창* · 신현수 · 정은지 · 이창걸 · 김귀언
최은창¹⁾ · 김광문¹⁾ · 홍원표¹⁾ · 차인호²⁾ · 서창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치료방사선과학교실,
이비인후과학교실,¹⁾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²⁾

연구목적 : 구강설암 환자중 병기가 비교적 초기(T1, T2)인 경우는 경부임파절 전이율이 약 20~30% 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잠재성 경부임파절 전이(occult neck node metastasis) 가능성도 약 25~30%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임상적으로 경부임파절 전이가 발견되지 않는 환자에서 선택적 경부임파절 절제술(elective neck node dissection)이나 예방적 방사선요법이(prophylactic irradiation)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부임파절 전이에 미치는 인자를 분석함으로써 경부임파절 치료의 방침을 결정하는데 이용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1986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연세의료원에 내원하여 구강설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87명의 환자중 경부임파절 절제술이 시행된 4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든 환자에서 병리학적 유형은 편평상피세포암이었다. 대상환자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32명, 15명이었고, 연령은 30세부터 83세로 중앙연령값이 54세 였다. T-병기는 T1, T2, T3, T4가 각각 16명, 20명, 4명, 7명이었다. N-병기는 N0, N1, N2a, N2b, N2c, N3가 각각 22명, 9명, 3명, 10명, 2명, 1명이었다. 연구수행은 성별, 나이, 종양의 위치, 종양의 크기, 종양의 색깔, 종양의 형태, 종양의 분화도에 따른 병리학적 경부임파절 전이(pathologically neck node metastasis) 여부를 알아보았으며 이중 3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종양에서의 p53 및 PCNA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여 두 인자의 양성정도에 따른 경부임파절 전이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통계적 방법으로 단일변수분석에는 카이제곱 검정법을 이용하였고 다변량분석에는